

도교육청, 새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 완화

마스크 착용 자율... 통학버스 등 이용시에는 착용
발열검사 필요시에만·자가진단앱 참여 대상 축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정화됐다고 판단 3월 새학기부터 학교 방역지침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은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방역체계는 유지하며, 실효성이 저하된 방역체계를 조정해 학생·학부모·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마스크 착용은 실내·외 모두 자율로 변경된다. 다만, 학교 통학버스 등 단체버스이용 시에는 착용해야 한다. 또 등교 시 진행했던 발열검사는 폐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 급식실과 기숙사 공용공간 간 막이는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하다. 하지만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방역 인력 배치,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시 관리 요청 등은 기존대로 운영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개학 전후를 새학기 학교 방역관리 현황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달라진 학교방역 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학교별로 방역체계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새학기부터는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과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24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김향윤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오근수 순창군 기획예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농촌유학 활성화 힘 모은다

도교육청, 순창군과 교육협력 협약 체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농촌유학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과 최영일 군수는 지난 24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김향윤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오근수 순창군 기획예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유학과 현장체험 학습 등 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 기관은 순창발효테마파크의 문화시설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교육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순창군이 지역 발효 문화 인재 육성

과 발효 문화 확산을 위해 건립한 순창발효테마파크는 발효소스 토크, 미생물뮤지엄, 효모사피엔스관 등의 전시시설을 포함해 챔피언 스포츠파크, 용기종기 놀이도서관&과학관, 발효테라피센터, 고추장상설문화마당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협약이 끝난 후 서 교육감과 최 군수는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군수는 △화문산 평화통일 역사·문화 체험 학습장 조성,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순창 발효테마파크 등을 활용한 전통장 문화학교 교과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촌유학 시설 건립을 위한 교육청 부지 확보, △고등학교 입학생 정원 확대 등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교육청 부지 매매 및 교환 등의 방식으로 농촌유학 시설 건립 등 사업별로 충분히 검토해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은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인구감소를 1위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전북교육청과 협력해 농촌유학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의 힘만으로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면서 "농촌유학 등 다양한 교육 정책으로 순창군에 다시 인구가 유입돼 학생 수가 늘고 학교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순창=이양원기자



전주대학교는 글로벌대학 추진을 위한 전진기지로 월드옥타 싱가포르 지회와 쿠알라룸푸르 지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는 오는 28일자로 정년을 맞이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정년식을 지난 21일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대, 글로벌 대학 추진 전진기지 선정

월드옥타 싱가포르 지회
쿠알라룸푸르 지회 등 2곳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글로벌 대학 추진을 위한 전진기지로 월드옥타 싱가포르 지회와 쿠알라룸푸르 지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때 영국령이었던 두 국가는 현재까지도 영국식의 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유럽 선진 교육과도 연결돼 있다. 이에 영어생활권으로 글로벌 진출의 거점지역으로 최적의 환경이다. 전주대는 두 지역을 글로벌 전진기지로 선정, 쿠알라룸푸르의 UKM 국립대학과 APU 사립대학, 싱가포르 NUS 국립대학, NTS 국립공과대학교도 상호협력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학들은 전주대학교가 특성화하고 있는 전통

문화와 드문 스포츠 등에 관심이 높아 상호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하다. 박진배 총장은 "HATCH 글로벌 거점센터인 월드옥타 싱가포르 지회와 쿠알라룸푸르 지회를 글로벌 진출의 허브로 구축해 졸업생 및 재학생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도입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적화 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원광대, 2022학년도 2학기

교직원 정년식 열어

이번에 정년을 맞은 교직원들은 강성돈(의학과), 김영복(한의예과), 김원신(생명과학부), 김정화, 서운(복지보건학부), 박광수(원불교학과), 박윤점(원예산업학과), 이상권(철학과), 이숙향(영어영문학과), 이순래, 장규원(경향정경학과), 전정환(법학전문대학원), 정기성(소방행정학과), 주수종(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홍달아기(가족이동복지학과), 홍승재(건축학과) 교수와 조영진, 백선진, 강대영 선생 등 모두 20명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8년 연속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선정

우석대, 고용부·전북도로부터 2억2500만원 지원받아
12월 말까지 전북 유관기관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진행
직무중심 멘토링 패키지 등 취업 프로그램 집중 지원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석대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로부터 2억2,500만원을 지원받아 올해 12월 말까지 전북지

역혁신프로젝트 합동 취업설명회 등 취업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우석대는 지난해 전북지역 미취업 청년 5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과 AI, 취업 매칭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남천현 총장은 "전북지역 내 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인식 개선을 통한 청년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